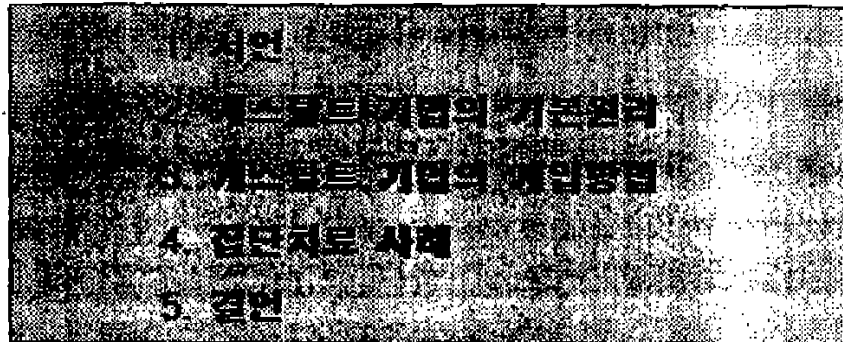


게스탈트 기법을 이용한 집단치료에 관한 소고

한 인 영*



1. 서언

임상 사회사업가는 그가 속한 기관의 목표와 설립 이념에 맞추어 대상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정신 신체적, 경제적 상황에 변화를 초래하는 매개인이 되며 그들이 처한 각종 위기에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때 많은 임상 사회사업가들은 집단치료 전문가로서 여러 종류의 집단을 다루며 다른 정신 치료 전문가들과 공동치료자(co-therapist)로서 일하게 된다.

임상 사회사업가들 중에서 종합병원의 의료 사회사업가로 일하는 경우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 환자를 질병별로 모아서 집단치료를 하여, 환자가 질병에 대해 갖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다루고 병인과 싸우도록 용기를 줌으로써 그 결과 질병 그 자체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

* 미 8 군 121 병원 임상사회사업가

이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 집단, 심장병 환자 집단,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집단, 수족 절단 환자 집단, 폐질환 환자 집단, 천식 환자 집단, 암환자 집단, 뇌손상 환자 집단, 통증 환자 집단 등을 구성하여 임상사회사업가가 집단치료를 하여 병인식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함으로써 투병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또 그들의 가족을 위한 집단도 질병에 대한 인식과 적응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또 정신병원의 입원 병동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들도 집단치료에 자주 접하게 된다. 사회기술 집단, 퇴원준비 집단, 가족교육 집단, 우울증 치료 집단 등은 말할 나위도 없고 국내에서는 작업치료나 오락치료에도 사회사업가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외래상담소 혹은 정신치료 외래클리닉 같은 곳에서는 각종 질병별로, 주제별로 치료 집단을 개설할 수 있다. 성적 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집단, 강간피해자 집단, 독신중년여성 집단, 비행청소년 집단, 퇴원환자의 사회적응 집단, 노인 우울증 집단, 불안증 환자 집단, 공포증 환자 집단, 스트레스 관리 집단 등등 다양하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임상 사회사업가들의 집단치료 활동이 국내에서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각종 집단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게스탈트 기법을 제시하여 임상 사회사업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며 게스탈트 개입방법의 기본원리와 실제적인 개입방법을 제시한 후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는 집단치료 사례를 통해서 게스탈트 기법이 활용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게스탈트 기법의 기본원리

일반적으로 게스탈트 치료자는 클라이언트가 개인이건 가족이건 집단이건 간에 치료라는 것은 사회체계의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인식하였다.¹⁾ 그 과정 중에서도 개별적인 조직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1) Elaine Kepner, "Gestalt Group Process" in Bud Feder and Ruth Ronall(Eds).

즉 접촉(contact) 및 접촉의 경계(contact boundary)를 중시하였다. 게스탈트 이론가들은 개인과 환경은 상호의존적이면서도 한쪽의 변화는 다른 쪽에 영향과 변화를 미친다고 믿는다.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Fritz Perl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급자족하는 개인은 없다. 개인은 환경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매순간 자신과 환경을 포함하는 어떤 장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그와 환경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²⁾

Perls는 이와 같이 개인을 체계적 관점에서 보았고 특히 정신 내적 체계의 현상에다가 초점을 두었다. 실상 게스탈트 치료에서는 개인의 하위체계라고 볼 수 있는 정신, 신체, 영혼 등이 분리된(split) 현상을 치유하여 각 파트가 연합됨으로써 환경과의 접촉을 위해 원활히 작용하도록 통합(integration)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또 게스탈트 치료자들은 통합을 동화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인간의 성숙은 결국 환경과의 동화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모든 조직체는 욕구(need)를 경험하고 환경과의 접촉을 피하여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동화하여 욕구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건강한 조직체는 욕구가 줄곧 형성되고 그로 인해 조직체의 불균형(disequilibrium)을 경험하게 되는데 환경과의 활발한 접촉(contact)을 통한 동화작용으로 인하여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삶은 끝나지 않은(unfinished) 상황, 즉 불완성된 게스탈트 상황이 늘 존재하게 마련이며 건강한 사람은 이와 같은 불완성된 게스탈트 상태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면서 살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 성숙은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awareness)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게스탈트 기법에서는 신경증은 성장이 정지된 상태로 보며 자아기능(ego)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Beyond the Hot Seat, New York: Brunner/Mazel Publishers, 1977, p.13.

2) 전계서, p.8.

있다. 또 정신병(psychosis)은 이드(Id)에 손상이 생긴 것으로서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기대 사이에 차이가 크으로써 자신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 환상과 실제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상태로 이해되고 있다.

게스탈트 치료에서는 이와 같은 정지된 성장, 미완성된 게스탈트 상태에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집단치료를 할 때는 집단을 개인이 모인 집합체로서뿐만 아니라 감정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집단은 체계 내의 개인의 감정, 태도, 행동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체계 안에 있는 개인의 감정, 태도, 행동으로 인해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신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역할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게스탈트 집단 지도자는 집단 안의 개인의 발전상황과 집단 자체의 체계적인 발달상황을 동시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치료에서는 변화의 매개인으로서 치료자 혼자서 일해야 하지만 집단치료에서는 치료자와 집단의 구성원이 함께 변화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치료자와 집단성원들은 “희망과 지지를 제공하며, 우주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애타적인 행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간의 피드백을 주고 테스트하고 서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³⁾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게스탈트 치료에서 성장은 경계선의 현상, 즉 자기와 환경간의 접촉(contact)의 결과라고 묘사될 수 있다. 치료자는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여 집단성원이 인식과 에너지가 어떻게 방해받고 환경과의 접촉을 회피하게 하는가를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치료자는 집단성원에게 게스탈트 방법을 가르치고, 배울 환경을 마련하며 그와의 정서적인 관계 성립을 통해 이러한 가르침이 생기게 한다.

집단을 구성할 때 게스탈트 치료자는 게스탈트 기법으로 특히 효과가 있는 유형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George Greaves는 말했으며, 그는 게스탈트 기법으로 효과가 좋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고

3) Irvin Yalom,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 Basic Books, Inc., 1970.

말했다.⁴⁾

1) 자기 내부가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 양가감정이 심하고, 끊임없는 강박관념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일차적인 수단이 지능으로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

2) 사고나 행동이 서로 맞지 않아서 “통합”이 필요한 사람들

3)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

4) 기본적으로 건강하지만 인간으로서 더욱더 성장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 실존적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분명한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들, 삶을 극대화하고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그는 효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제시함으로써 치료자들이 집단을 구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였다. 게스탈트 기법으로 효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1) 고도로 산만하고 혼란된 사고과정을 가진 사람들(흔히 히스테릭한 인성구조를 가진 사람들)

2) 관계형성이 어려운 사람들

3) 내적 성장을 포기한 사람들

4) 극단적으로 외부지향적이어서 내적 성찰이나 명상에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5) 기질적 장애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6) 표준 이하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

3. 게스탈트 기법의 개입방법

3.1. 집단 지도자의 개입 스타일

4) George Greaves, "Gestalt Therapy, Tantric Buddhism and the Way of Zen" in Edward Smiths(Ed) The Growing Edge of Gestalt Therapy, Secaucus : The Citadel Press, 1976, pp.187-188.

집단치료에 있어서 집단 지도자는 개입의 목표를 개인에게 둘 것인가 두세 명에게 둘 것인가 또는 집단 전체에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즉 개인의 정신 내적 역동에 대한 개입, 집단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 혹은 집단 전체의 체계적인 차원에서의 개입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개입 목표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집단의 발달단계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Elaine Kepner는 말했다.⁵⁾ 그러나 집단내 개인의 행동과 집단 과정의 역동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Yalom은 개인이 세 가지 영역의 욕구를 집단에 가져오는데,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 자치적 (autonomy)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애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온다고 하였다.⁶⁾ 이것을 주제별(issue)로 구별해 보면 자아정체감(identity), 권력과 영향미치기, 그리고 친밀감 문제이다.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아정체감을 수립하고자 하는 욕구는 의존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 또 자치적이고자 하는 욕구는 권위와 통제를 시험하게 하기 때문에 비의존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 애정에 대한 갈구,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구는 집단 멤버간에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므로 상호의존적인(interdependent) 행동을 하게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상황이 집단 과정 중에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집단의 발달단계에 따라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Joseph Zinker는 집단 지도자의 개입의 스타일을 로제리안 모델 (Rogerian Model), 심킨 모델(Simkin Model), 그리고 게스탈트 과정 모델 (gestalt process model)로 묘사하였다.⁷⁾

로제리안 모델은 Carl Rogers의 스타일을 본뜬 것으로 지도자가 비지지적인 태도를 보여 실제로 구성원들이 신뢰감을 형성하고 서로 지지하는 방

5) Elaine Kepner, "Gestalt Group Process" in Bud Feder and Ruth Ronall(Eds), Beyond the Hot Seat, New York : Brunner/Mazel Publishers, 1977, pp.15.

6) Yalom, 1970.

7) Joseph Zinker, Creative Process in Gestalt Therapy, New York : Random House, 1977, pp.157-165.

법을 모색하도록 자극하는 방법이며 집단은 방향 설정에 있어서나 집단 과정의 명확성을 위한 것 등을 모두 구성원에게 맡기게 된다. 집단을 인도하는 사람은 집단이 새로운 작업을 형성하고, 개발하고 확장하도록 꾸미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그대로 놔두려는 경향이 있다. 로제리안(Rogarian) 치료자들은 집단의 권한과 그 과정을 집단성원들에게 맡기는 집단 지도자들이다.

반면에, 심킨 모델(Simkin Model)이라는 것은 Fritz Perls가 초기에 매우 권위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집단성원 중에서 소위 중심의자(hot seat)에 앉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치 개인치료를 하듯이 진행하는 방법이며 후에 James Simkin이 매우 집중적이고 권능적이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여 심킨 모델이라고 부른다. Perls는 집단치료를 하는 동안 집단성원 중에서 자기 문제를 나누려는 충동을 가진 사람과 재빨리 이인체계(dyad)를 구성하였으며 집단의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관중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치료에 몰입하도록 유도하였다고 Kepner는 Perls를 묘사하고 있다.

다른 집단성원들은 다만 간접 경험 혹은 이차적인 접촉만을 경험할 뿐이다. Joseph Zinker는 이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집단 전체의 재능, 감정, 창조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과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인 책임과 집단성원간의 지지를 집단 내에서 배우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게스탈트 과정 모델은 게스탈트 집단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즉 지속적인 집단 경험을 고양시키고 집단 차원의 인식을 높이며, 집단성원간의 활발한 접촉을 촉진시키고 상호관계를 위한 실험(experiment)을 하게 하는 것이다. 성장은 개인과 환경간의 경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나”와 “내가 아닌 대상”과의 새로운 반응을 형성하여 변화된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게스탈트 집단치료는 개인들 간의 만남, 접촉을 고양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게스탈트 집단치료의 목적은 자기의 욕구(need)를 전적으로 인식한 후 그에 대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기술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환경에다가 자기자신을 주입시

키는 것이다. 그가 자기의 욕구(need)를 충족시키면 그는 일시적으로 그 상황에 흥미를 잃게 되고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된다.

게스탈트 기법이 욕구충족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개인이 자기의 내적인 욕구를 인식한 후 그것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인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게스탈트 치료 기법은 지적인 통찰력의 달성보다 행동상의 변화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본인에 대해서 매우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역기능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집단 내에서 집단 성원이 가지게 된 인식, 즉 깨달음을 실제로 행동 변화에 옮겨 봄으로써 보다 확실한 학습이 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집단 내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장(章)을 마련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집단치료자는 권위를 갖되 집단 내에서 유동성 있게 움직이며 또는 집단의 한가운데서 집단성원간의 관계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집단의 가장자리에 후퇴하여 집단성원끼리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개입스타일, 즉 로제리안 모델(Rogierian Model), 심킨 모델(Simkin Model), 또는 게스탈트 과정 모델(Gestalt Process Model) 중에서 집단지도자가 어떤 개입스타일을 사용할 것인지는 집단의 발달과정, 지도자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개입스타일이든지 집단치료자가 게스탈트 기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참석자들이 집단과정 중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율을 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주요한 원칙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언어와 행동의 책임성을 갖는다. 때로 집단성원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의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삼자의 의견인 양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한다.

2) 지금-여기(here-and-now)의 감정에다가 우선순위를 둔다. 현재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집단성원들과 나눈다. 지금-여기의 감정에 대해서는 후

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3)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기의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즉, 귀를 기울여 듣는 것과, 듣지 않고 있다가 집단의 과정에 뛰어드는 것(jump in)의 차이를 깨닫는다.

4) 질문보다는 완성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되집어 문의식으로 하는 것은 금물이다. (예. 집단성원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가 한 말이 통 들을 가치가 없다는 태도처럼 느껴지는군요.' 등) 순전히 정보를 알기 위해서 '몇 살입니까'라고 묻는 것은 예외이다.

5) 방안의 중간에다가 말을 던지지 말고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려고 노력한다.

6) 다른 사람의 감정에 유념하고 인정해 준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거나 그 감정의 발생 원인을 캐려고 해서는 안된다. '당신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이라고 말하면서 정서에 대해 분석을 해 주려고 해서는 안된다.

7) 다른 구성원의 자세나 몸짓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본인 자신의 신체적 경험에 유념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더듬거리고 있는 동안 본인이 두통을 경험하거나 신체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그 경험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8) 집단의 구성원들이 말하는 내용의 비밀성을 보장한다.

9) 토론에 참여하다가 집단 실험(experiment)을 하게 될 경우, 위험성(risk)이 있는 경우에도 기꺼이 참여한다. 집단을 하나의 인간 실험실로 활용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까지도 그 행동의 영향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한다. '내가 정말 화를 내면 아마 사람들이 놀라 죽어 버릴 거야'라고 믿는 사람이 분노를 극심하게 노출한 이후 집단성원들이 매우 감동되고 놀라웠고 변화되었으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10) 중요한 집단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인의 감정이나 표현을 억

제한한다. 그래야만 집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또 이후에 본인이 중요한 문제를 내세웠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집단성원들로부터 아무런 방해 없이 집단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1) 구성원의 심리적 공간을 존중해 준다. 우울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구성원이 오늘은 '가만히 있고 싶다'고 했을 경우 그의 말을 존중해 주고 그에게 공간을 준다.

게스탈트 기법에서 치료자와 집단성원의 의사소통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Stanley와 Cooker는 일곱 가지의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감정이입, 존경, 순수함, 표현의 구체성, 상담자의 자기노출, 대면, 즉각성 등이다.⁸⁾ 감정이입이란 내가 당신의 감정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게 하는 것이며, 존경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게스탈트 치료자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직 그가 가장 자기자신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믿는다. 순수함이란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본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일과, 인식된 감정을 상대방과 나누고자 하는 의도이다.

표현의 구체성이란 지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과거-그때의 일에 대한 해석보다 지금-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상담자의 자기노출은 상담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며 대면은 관찰된 행동과 진술된 감정과의 차이를 지적해 주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여 그것이 좋은 단서가 되고, 불일치된 점을 지적해 주는 일이다.

즉각성이란 상대방과의 관계성에서 직접적인 기능을 말한다. 상대방의 어떤 진술에 대한 본인의 감정적, 인지적 반응을 인식하고 그것을 즉각적

8) Charlton Stanley and Philip Cooker, "Gestalt Therapy and Core Conditions of Communication Facilitation : A Synergistic Approach" in Edward Smith(Ed) The Growing Edge of Gestalt Therapy, Secaucus : The Citadel Press, 1977, pp.161-165.

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감정이입, 존경, 순수함, 표현의 구체성, 상담자의 자기노출, 대면, 즉각성 등 7가지 방법을 통하여 집단치료자는 집단성원과의 의사소통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집단성원이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게 하여야 한다.

게스탈트 기법은 위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달라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본래 모습대로 있게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나이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를 잃으면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생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수용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정한 자아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도자는 집단성원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Perls는 심리적 성장은 좌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치료자는 동정과 좌절의 균형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집단성원의 표현 중 조작적인 기술, 신경증적인 유형, 그가 가지는 자아개념 등을 좌절시키고 진정한 자아의 표현을 권장하는 것이다.

3.2. 지금-여기의 기술

게스탈트 치료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므로 “현재”를 강조한다. 살아 있는 현상, 즉 지금, 여기(here-and-now)의 현상을 중시하는 것이다. 집단성원이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매순간마다 인식을 하게 되면 그는 현재의 어려움이 왜 생성되었는가를 알게 된다. 집단성원은 현재 그가 가진 문제를 과거의 용어나 기억의 용어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그것을 현재 재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그의 호흡, 몸짓, 느낌, 정서, 목소리를 최대한 경험하도록 요구된다. 그의 전체 게스탈트가 그의 재경험을 통해 비추어지고 있으므로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방식도 매우 중요하다. 집단성원에게 치

료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지금 무엇을 봅니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현재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손을 떨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게스탈트 기법 중에서도 지금-여기의 개입은 한 개인의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체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그의 생각, 감정, 신체, 가치관, 정서, 움직임, 개념, 감각 등을 모두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체적인 체계는 클라이언트가 개인이건 가족이건 집단이건 간에 치료라는 것은 사회체계의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인식한다.⁹⁾

게스탈트 기법을 통한 성장집단에게 신체감각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집단에게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에 주목하게 한다. 즉, 냄새, 소리, 보이는 것 등에 대해 집중해서 인식하도록 권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각자 좀 더 발달된 감각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청각이 시각보다 더 발달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후각이 더 발달되었음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본인의 내적인 이미지에 집중하게 한다. 자기 내부의 정서, 느낌, 생각,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신체적인 망각현상, 근육의 긴장감 등을 감각해 보고 여기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눈다.

특히 신체에 대한 감각에만 초점을 두어 신체의 어느 부분에 고통을 느끼나 떨리는 부분은 어디인가, 근육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인가, 신체의 전체를 느낄 수가 있나, 머리 부분과 윗몸 부분이 연결 상태가 어떠한가, 팔과 다리의 중압감 정도는 어떠한가 등을 집중적으로 느껴 보게 한 후에 집단 내에서 대화를 나눈다.

한국인에게는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신경증 등에 의한 신체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게스탈트 기법은 정신 내적 요소에만 치중하지 않고 신체적인(kinesthetic) 면, 즉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는 동안의 신체의 작은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 치료자 자신이 시범을 보이면서 정서

9) Elaine Kepner, p.13.

적인 것과 신체 현상을 결부시킨 말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정서에 파고 들 수가 있다. 즉 '당신의 그 말을 들으니까 제(치료자)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등의 말은 집단성원이 정서적 문제를 신체화할 때에 신체적 반응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정서에 도달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혹은 그의 신체변화 현상을 단순히 묘사만 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 '그 친구 이야기를 할 때는 눈가가 빨개지더군요.'라고 단순히 묘사해 줌으로써 그가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의 슬픔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슬픔을 폭발시켜 버리거나, 황급히 감추어 버려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정서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3.3. 빈 의자 기법

빈 의자 기법은 게스탈트 치료 기법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며 빈 의자를 사용하여 역할 담당극과 같이 대화가 진행되도록 마련하는 방법이다. 두 개의 빈 의자에는 문제를 가진 집단성원과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의자를 번갈아 앉으면서 두 개의 역할을 교대로 수행할 수도 있다.

치료자는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단순히 관찰하거나 그로 하여금 의자를 바꾸어 앉도록 권하거나 방금 말한 것 또는 말한 방식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반복 또는 과장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나 갈등은 자극되어 유발되고 곤경을 강화시켜 깨달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빈 의자 기법은 양가감정이 인식되었을 때에도 많이 쓰인다. 양가감정은 처음부터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게스탈트 접근을 통하여 일차적이고 차별화되지 않은 감정들에 접근하여 점차적으로 감정이 구별되고 양극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의식적인 신체 정신적 활동을 멈추고 개인의 전체적이고 유기체적 경험의 자연적 리듬을 느낌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개인은 같은 맥락 안에서 서로 상반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 가까운 것이라

는 것을 알게 된다.

양가감정 증에서도 신경증 환자는 사랑과 친절로 가득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들은 거부(rejection)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양가감정의 원리는 선불교와 도교의 음양설에서 따왔으며 이것을 경험적(experiential)이고 실험적(experimental)인 방법으로 탐구해 보아서 본인의 인식(awareness)을 높이는 데에는 빈 의자 사용법이 많이 쓰인다.

초자아(superego)와 이드(Id)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도 빈 의자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게스탈트 치료에서는 이것을 topdog과 underdog의 대화(dialogue)라고 명명하고 대화 중에 인식이 높아져서 통합을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데 이 때에 빈 의자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치료자는 적절히 반응하여 집단성원으로 하여금 방금 말한 것을 반복하게 하거나, 더욱 감정이 많이 들어간 표현을 하게 하거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거나, 방금 말한 것의 반대를 말하게 하는 등 일종의 코우치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4. 집단치료 사례

여기에서는 본 연구자가 인도하는 치료 집단을 사례로 하여 앞에서 언급한 게스탈트 기법이 실제로 사용된 것과 지도자의 개입 스타일에 대하여 사례를 들고자 한다.

우선 집단 성원에 대한 묘사와 집단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집단의 규범과 성격, 목표, 그 동안 집단 지도자가 어떠한 개입 스타일을 사용하였는가, 어떠한 게스탈트 기법을 활용하였는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인도하는 집단은 성장 집단(growth group)으로서 이 집단은 개인의 정서적 성숙과 자아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집단성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개

인 치료를 받고 싶으나 마땅한 치료자를 구하지 못한 것도 집단 치료에 임한 이유였다. 집단성원은 20대 후반의 여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남을 돕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본래 집단성원으로서의 응집력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 간행물이나 전문서적을 구독하던 집단성원 열 다섯 명 중에서 집단 치료를 받고자 하는 여덟 명만으로 성장 집단이 구성되었다.

집단성원 중에서 2명은 기혼자이고, 2명은 약혼한 상태이고, 나머지 4명은 미혼이다. 집단성원 8명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이후에 1명은 집단에서 탈퇴하였는데 그것은 그녀가 출산을 했기 때문이었고, 그 이후 아기 때문에 집단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 그녀는 출산 후 회복기 이후에 다른 도시로 이사함으로써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출산 때문에 집단에 계속 참석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시작이라도 같이 하고 싶어하였다.

그러므로 집단의 성장과 역동성은 주로 7명이 이룩한 셈이며 뒤에 묘사하는 모든 역동성은 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집단 초기에 집단성원들은 규범을 정하고자 하였다. 지각하지 않기, 결석하지 않기 등이 초기에 언급되었는데 집단성원들이 모두 직장과 학업, 기타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바쁜 가운데서 서로의 참석에 대해 다짐하는 모습이 보였다. 비밀 보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는데 집단 내에서 진행되었던 사적인 내용을 집단 밖에서 토의하거나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보장성이 다루어졌고 참석 못했던 집단성원에게는 다음 번 집단 모임 때 설명해 줌으로써 집단 밖에서는 집단의 역동성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집단성원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의 응집력과 친밀도가 있었기 때문에 집단 밖에서의 다른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았다.

집단성원 중 3명은 29세, 1명은 28세, 나머지 3명은 27세이다. 나이에 따라서 집단 내에 약간의 위계 질서가 있는 듯했으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산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집단성원은 대부분 개인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필요성을 깨닫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망설이던 중이었다. 마땅한 개인치료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 경제적으로 개인치료가 비싼 점 등이 개인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심한 병리적인 요소가 있어서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의 치료욕구가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어진 것 같다.

집단 초기에 지도자는 이와 같은 성장 집단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지를 집단성원들에게 문의하였고 이것은 집단의 목표나 집단 성원이 각자 가지는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 자연스럽게 토의하기 위함이었다. 집단성원들은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집단 경험을 가져 보기 위해서”, “자아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 생활하는 중에 경험하는 인간 관계의 갈등을 풀어 보고자”, “내적인 문제를 꺼내어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자기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서” 집단에 참석한다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초기에 집단 전체가 가지는 목표에 대해서는 깊이 토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이 이미 어느 정도의 응집력과 친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지도자가 가졌던 목표는 집단성원이 집단의 과정(process)과 집단성원간의 역동성(dynamic)을 활용하는 것에다 두었다. 집단성원이 집단의 과정과 역동성을 통하여 Perls가 주장한 바와 같이 새로운 환경과의 접촉(contact)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통합(integration)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집단 지도자로서 본 연구자는 집단성원이 집단을 통하여 과거에 있었던 끝나지 않은 상황(unfinished business)을 다룸으로써 치유(healing)를 경험하며, 가정 생활에서의 관계를 재경험하여 새로운 차원의 지지(support)를 경험하고 특히 게스탈트 기법을 집단성원들이 경험하고 익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집단 경험을 통하여 본인의 정신역동내적인 감정의 변화가 인간 관계의 역동성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자아인식을 높이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초기에 두세 번의 집단시간에는 집단성원의 자기 소개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걸으므로만 알고 지내던 집단성원들 사이에 신뢰성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개방하고 싶은 만큼만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집단성원들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역동성과 특히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거리낌없이 개방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집단성원 중에는 집단에서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 통찰력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신뢰도가 부족하여 조심성을 보이는 집단성원도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한 신뢰도를 가지고 본인의 내적인 우울감과 가족원간의 감정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집단성원도 있었다.

집단 지도자는 집단의 규범, 자기 소개 시간 등이 진행된 초기에서부터 심킨 모델(Simkin Model) 방식으로 집단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금-여기(here-and-now)의 기법을 수시로 사용하였다. 집단성원들은 지금까지의 열네 번의 집단 모임 동안 규율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례로 본인들의 정신 내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집단성원들은 서로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 없이 집단 초기부터 매우 깊이 있는 개인 문제들을 집단에서 개방하였다. 집단성원들이 그 동안 집단에서 다룬 문제는 직장에서 경험하는 다른 전문직 동료들과의 갈등이 많았으며, 그 밖에는 가족원과의 갈등, 개인의 우울감 및 불안감, 장래 문제, 결혼에 대한 양가감정 등이 골고루 분포된 듯하였다.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가족간의 갈등, 결혼에 대한 양가감정 등은 문제에 대해 본인이 갖는 감정의 양극화를 인식하게 하고 집단 내에서의 “재연”을 통해서 실생활의 갈등을 재경험하고 지금-여기(here-and-now)에서 그것을 재경험함으로써 그의 느낌과 생각을 끄집어내어 끝내지 못하던 상황(unfinished business)을 정리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었다. 집단성원들은 문제 상황에 대한 치료과정이 끝나면 그의 감정과 신체의 에너지가 통합되어 매우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다.

지금-여기의 방법과 빈 의자 기법을 함께 사용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집단성원은 자기에게 있었던 갈등 상황을 설명한다. 즉 지난 주에 동료가 좀 보자고 말했다. 동료는 그녀에게 비난의 말을 퍼부었고 그

것에 대해 그녀는 전혀 대꾸하지 못한 채 비난을 듣고는 어이없어 한 상태였다. 그녀는 동료가 자기를 보자고 했을 때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상호작용(interaction)을 기대했었다. 강렬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약간의 쇼크와 같은 멍한 상태를 경험했다. 몹시 상처를 받았고 그 경험을 통해 본인은 자존감(self-esteem)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동료에 대한 강한 분노의 감정(anger)을 느꼈다. 너무나 기분이 상하고 그 이후 동료는 거리감을 유지했으며 그녀는 줄곧 무엇인가를 당했다는 느낌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기대했다가 허물어진 거부감(rejection), 동료에 대한 분노를 느꼈고 적절하게 자기 주장을 해내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 등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그것은 끝나지 않은 상황(unfinished business)임이 분명하였다.

이에 대해 집단 지도자는 그녀로 하여금 있었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고 중요한 측면에 대해 질문한다. 즉 그녀가 평소에 그 동료와 가졌던 감정은 무엇인가. 비난의 말을 듣고 놀란 감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 비난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그와 같이 억울한 비난의 말을 갑작스럽게 들은 경험이 과거에 있었는가 등을 말하게 한다. 그러한 상황 설명과 감정에 대해 묘사하는 동안 그녀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고, 특히 그녀의 감정이 신체적 변화로 드러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즉, 그녀는 특히 동료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제대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을 묘사할 때에 얼굴이 붉어졌으며 주먹을 약간 오므렸고, 눈 주위에 긴장이 맴돌았다.

집단 지도자는 이 때에 지금-여기(here-and-now)의 테크닉을 사용하여 그녀가 지난주에 있었던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또 특히 제대로 대꾸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지금 분노를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묘사하게 하고 감정을 느껴 보게 한다. 그녀는 분노를 느낀다. 주먹을 더욱 힘있게 쥐어 본다. 그녀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빈 의자 기법을 활용한다. 빈 의자에 동료가 앉아 있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녀는 말한다. '잡 못됐

균요. 상황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똑바로 알구나 말하세요.’ 좀 더 심하게 상대방을 욕하는 것도 괜찮다고, 무슨 말이든 해도 좋다고 격려한다. 그녀는 쏟아 놓는다. ‘야! 제대로 알구나 말해라, 나는 그래도 네가 좀 나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영 형편없구나!’ 그녀가 한동안 분노를 언어화(verbalize)하자 그녀의 얼굴에 화평이 돌고 안정되는 듯하다.

집단 지도자는 말한다. ‘지금 기분은 어때요?’ 그녀는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녀를 만나면 차분히 내 입장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다.

그 이후에 그녀는 감정보다는 인지(cognition)에 중점을 두어 왜 그런 역동성이 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토론하고 평소에 자기 주장이 약화되어 있는 자신에 대하여 새로운 자아인식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지금-여기(here-and-now)의 기법과 빈 의자 기법을 통한 개인의 정신내적 역동의 치유가 있는 후에 집단 지도자는 집단성원 전체에게 묻는다. 무엇을 느꼈는가, 본인들이 각자 어떤 경험을 했는가 등을 말한다. 집단 전체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분노의 감정도 경험하고 분노가 언어화된 이후에 시원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기 주장을 못했던 과거의 다른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분노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 집단에서는 지도자가 심킨 모델(Simkin Model)을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중심 의자에 앉은 그녀에 대해 개인 중심적 개입(intervention)에 치중하고 개입의 과정이 있는 이후에 집단 전체에게 시간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집단의 발달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집단성원간의 상호작용보다 집단성원이 경험하는 내적인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인한 점도 있으며 집단성원이 갖는 상호작용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위의 예를 심킨 모델이 아니고 로제리안 모델을 통해서 진행시켰다면 집단 지도자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집단성원들이 해결하도록 맡길 것이며 게스탈트 집단 과정식으로 이끌었다면 집단성원 전체가 이 상황의 일

원을 담당하는 실험(experiment)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즉 집단성원 전체가 하나씩 역할을 담당한다. 의자 역할, 주변 환경의 소음을 내는 역할, 비난의 말을 한 동료의 역할 등을 모두 맡아 실제로 재연해 볼 수도 있다. 또 그 때의 상황을 상징화하여 마치 폭격을 당한 하나의 희생양 같은 상황으로 재연하되 집단성원들이 모두 하나의 역할을 맡아 재연해 보는 것이다.

이 성장 집단에서 치료자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집단성원들은 상호관계를 집단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집단의 발달단계상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혹은 치료자가 집단성원의 정신 내적 개인 문제를 심킨 모델을 사용하여 다루어서 집단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제재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혹은 집단성원이 개인의 문제를 집단에서 나눌 때 어떻게 집단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식도가 낮은 것일 수도 있다. 즉, 집단 지도자가 초기에 이 성장 집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집단성원들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하여', '자기 성숙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부의 문제를 꺼내어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대인관계적인 측면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집단 경험을 가져보고자' 한다는 목표도 역시 집단의 역동성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집단성원들은 집단 경험을 통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친밀감과 거리감의 양가감정, 특정 성격에 대해 갖는 거부감, 가족 같아 보이는 사람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목표도 세우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도 작용하는 듯하다. 즉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이나 감정대립은 되도록 삼가는 문화, 정면대결을 피하는 의사소통방법, 집단 내에 한 살이라도 손위의 집단성원에게 반대해서는 안되는 예절 등이다. 이와 같이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직접적인 감정표현이 억제되는 문화가 성장 집단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은 계속 연

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이 집단의 앞으로의 과제는 이와 같은 문화적 요소를 감안하면서 집단성원끼리의 상호작용을 고양시키는 것이며 이는 본 치료자가 집단 지도자의 개입 스타일을 게스탈트 과정 모델로 바꾸어 집단 과제를 통한 실험(experiment)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상실(loss)을 경험한 집단을 위해 집단성원이 장례식을 구성하거나, 동물의 꿈을 꾸는 집단성원을 위해 집단성원이 한 동물의 각 부분을 맡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창조적이고 비유적인 과제를 만들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집단 과제는 집단 경험을 통해서 집단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행위인 것이다. 앞으로 이 성장 집단이 이와 같은 공통적인 과제도 실시하고 창조적인 실험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높은 차원의 자아인식과 집단경험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5. 결 언

본 연구는 임상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제반 기술들 중에서 특히 게스탈트 기법을 집단치료에 적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살펴본 것이다. 또 집단치료의 실제 사례를 들어 게스탈트 기법의 실제 활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임상 사회사업가는 의료시설이나 정신의료 시설은 물론이고 그밖의 다른 사회사업기관에서도 집단치료를 많이 실시할 수 있어야겠으며 이에 대한 수퍼비전도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주제를 가진 단기치료집단, 즉 알콜중독 치료 집단, 중년여성 우울증 치료 집단, 성적으로 학대받은 여성의 치료 집단, 비행청소년 치료 집단, 노인 우울증 치료 집단, 아내 학대 남성들의 치료 집단 등이 임상 사회사업가들에 의해 구성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례는 현재 진행중이어서 집단의 시작과 끝을 다 연결시킨 전체발

전단계를 볼 수 없었으나 게스탈트 기법 중 지금-여기의 방법과 빈 의자 기법을 사용한 예를 볼 수 있었으며 지도자의 개입 스타일이 집단의 발달 단계에 미치는 영향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집단은 심킨 모델보다 게스탈트 과정 모델을 더욱 활용하여 집단성원의 상호작용을 고양시킬 계획이다.

본 연구자는 언어를 사용한 자기표현을 근본으로 하는 임상적 치료를 어떻게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집단치료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점, 감정을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천하게 여겨 온 점, 직접적인 대면 (confrontation)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을 꺼리는 점 등이 집단성원의 평등성과 자치성, 감정의 적절한 언어표현 등을 중시하는 집단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또 게스탈트의 지금-여기의 기법과 빈 의자 기법을 한국인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집단 지도자의 개입 스타일에 대해서도 집단의 성격과 발달단계 및 문화에 알맞는 개입스타일이 더욱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